



밥상공동체 · 서울연탄은행

1577-9044, 02)934-4933 mail@babsang.or.kr www.babsang.or.kr

담당 최윤석(070-4140-5098) 부장 김현익 대표 허기복 목사

보도자료

“국가를 위한 헌신, 따뜻한 밥 한 끼로 기억하겠습니다”... 서울연탄은행,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개최

- 일 시 : 2026년 9월 23일(수) 오전 10:30
- 장 소 : 서울연탄은행(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51-12)
- 주 관 :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담당 최윤석 간사 02-934-4933)

- ◇ 주요 내용 : ① 9월 23일, 서울연탄은행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65명 초청
②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 참석,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선 진심 어린 감사와 만남의 장

“명절이 와도 찾아올 혈육 하나 없고, 훌쩍 나이만 먹고 몸도 아파 나가기조차 힘드니 좁은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청춘을 세상이 다 잊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따뜻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니 진짜 명절이 온 것 같아 그저 고마워 눈물이 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열리는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국가유공자 신OO(81) 어르신들의 몽글한 소회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하 서울연탄은행)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사무소(2층 아가페 밥상공동체)에서 이처럼 홀로 명절을 견뎌내야 하는 보훈 가족을 위한 ‘추석 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다. 실적이나 수치 위주의 단순 물품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정성스러운 밥 한 끼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가슴 속에 묻어둔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진정한 위로와 만남에 중점을 둔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아가페 밥상공동체를 이용하시는 보훈 가족 총 65명이 참석한다. 서울연탄은행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이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두 손을 맞잡는다. 강윤진 차관은 지난 해 7월 보양식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이 서울연탄은행과 2번째로, 다시 한 번 급식봉사에 나선다. 청춘을 바친 헌신에 국가가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진심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지난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따뜻한 식사 대접과 더불어 보훈부에서 정성껏 마련한 명절 선물, 식용유 세트와 천혜흑감 세트 나눔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연탄은행,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보훈회관 등에서 모인 관계자들이 어르신들 곁에서 다정한 말벗이 되어 드리며, 동자동 골목골목에 보름달처럼 환한 한가위의 정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 호호훈훈, 훈훈한 보훈의 온기,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다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그 어떤 선물보다 어르신들께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 주는 따뜻한 눈맞춤의 시간"이라며, "이 따뜻한 동행이 이번 밥상 나눔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계속 이어주는 호호훈훈, 훈훈한 보훈 문화로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에 함께하는 후원 및 봉사 문의는 홈페이지(www.babsang.or.kr) 또는 전화(1577-9044)로 가능하다.

보도자료 담당 : 서울연탄은행 사회복지사 최윤석
(02-934-4933 / 070-4140-5098)

[참고사진]



2026년 2월 4일 국가보훈부와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권오을 장관)



2025년 7월 30일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중복맞이 보양식 나눔 행사(강윤진 차관)